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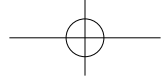
이미숙(장신대)

1. 서론

이스라엘 땅을 묘사하는 명칭 중 가장 잘 알려진 것을 들라면 ‘약속의 땅’과 ‘젓과 꿀이 흐르는 땅’일 것이다. 그러나 ‘약속의 땅’은 구약에는 없는 표현이고¹⁾ ‘젓과 꿀이 흐르는 땅’은 구약 전체에서 19회 나타난다. 사실 이것들보다 더 많이 나타나거나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이스라엘 땅에 대한 표현양식들은 따로 있다. 그것은 ‘내가(혹은 야훼께서) 네 계(혹은 조상) 준 땅’(이하 수여 유형, 93회), ‘내가(혹은 야훼께서) 네

* 이 글은 필자의 박사학위 논문의 일부로 2011년 5월 7일 건국대학교에서 열린 한국 이스라엘학회 제5차 학술세미나에서 발표한 논문을 수정, 보완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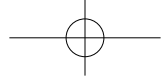
1) 신약에서 아브라함이 거하는 땅으로서 히브리서 11장 9절에 ‘약속의 땅’(γῆν τῆς ἐπαγγελίας)으로 유일하게 나타난다. 그밖에 명사형 땅 명칭에 대해서는 W. Janzen, “Land,” *The Anchor Bible Dictionary*(1992), 144-145; 김지은, “구약성서에 나타난 기업(גִּבְעָה)으로서의 땅 개념 연구,” 『구약논단』 제 9집(2000), 215-231 참고.



계(혹은 조상) 주기로 맹세한 땅’(이하 맹세 유형, 55회), ‘네가 들어가(혹은 건너가) 차지할 땅’(이하 점유 유형, 23회), 이 세 가지 표현들이 있다. 이러한 땅 표현양식들은²⁾ 단순히 이스라엘 땅을 가리키는 호칭을 넘어서 그들이 어떻게 땅을 차지하게 되었으며, 어떻게 땅을 이해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 중요한 묘사이다.

위의 세 가지 표현양식 가운데 수여 유형, 맹세 유형, 점유 유형은 신학적 의미가 담겨있다면 젓과 꿀이 흐르는 땅(이하 복지 유형)은 이스라엘 땅 자체에 대한 묘사로 유일하다. ‘약속의 땅’과 함께 이스라엘의 땅에 대한 묘사로 잘 알려진 ‘젓과 꿀이 흐르는 땅’은 구약에서 모두 19회 사용되고 있어 그 빈도수는 수여 유형과 맹세 유형보다 적게 나타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젓과 꿀이 흐르는 땅’이 이스라엘의 땅에 대한 대표적인 묘사중의 하나가 된 것은 그것이 주는 풍요로운 이미지 때문일 것이다. 일반적으로 ‘젓과 꿀이 흐르는 땅’은 풍요로운 낙원의 상징으로서³⁾ 신이 수여한 특별한 땅이라는 성격에 적합한 표현으로 해석되었다. 과연 이 표현양식은 최상의 비옥한 땅을 묘사하는 이상(理想)적인 상태를 의미하는가? 이러한 질문은 이스라엘 땅의 지리적인 조건을 고려할 때 일어난다. 이스라엘의 땅은 목축에 더 적합하며 꿀은 주요 수출품으로 기록될 정도이지만(겔 27:7) 이상적으로 비옥한 땅은 아니기 때문이다.⁴⁾ 따라서 복지 유형에 대한 해석을 두고 상징적인 의미로

- 2) 이스라엘 땅을 일정하게 표현하는 이러한 어구들을 가리켜 영미권에서는 land formula로, 독일에서는 Landformel이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는데 아직 우리나라의 구약학계에서는 이 용어 사용에 대한 논의가 없다. 본 연구에서 ‘땅 표현양식’이란 “땅을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적 측면에서 어떤 기술적인 용어나 일정한 표현법으로 나타내고, 이를 반복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구절로서 이스라엘 땅”을 일컫는 네 가지(수여, 맹세, 점유, 복지 유형)를 가리킨다.
- 3) J. G. Plöger, *Literarkritische, formgeschichtliche und stilkritische Untersuchungen zum Deuteronomium*, *Biblica* 49(1968), 90-91; P. D. Jr Miller, “The Gift of God: the Deuteronomic Theology of the Land,” *Interpretation* vol. 41(1969) 456-457; N. C. Habel, *The Land is Mine: Six Biblical Land Ideologies*(Minneapolis: Augsburg Fortress, 1995), 정진원 역, 『땅의 신학』(서울: 한국신학연구소, 2001), 59-62.
- 4) 최근에 에탄 레빈(Etan Levine)은 이사야 7장에 근거해 복지 유형을 낙원의 이미지로 해석하는 것에 신중을 기할 것을 요구한다. 그에 따르면 ‘젓과 꿀’의 상징은 이사야 7장에서는 재앙과 농업사회의 파괴에 따른 피폐



볼 것인지, 사실적인 묘사로 해석할 것인지를 두고 의견이 나누어진다. 특별히 신명기에 나타난 복지 유형은 모두 6회(6:3; 11:9; 26:9, 15; 27:3; 31:20)로 단일한 책으로는 가장 많이 나타나며, 조상들에 대한 땅 약속의 맹세 유형이나 수여 유형과 결합된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2. 연구사와 문제

복지 유형 표현양식의 기원에 대한 첫 언급은 그레스만(H. Gressmann)이 바벨론의 제의 문헌에서 유목민들의 이상(ideal)으로서 ‘젓과 꿀’이 언급된 것에서 유래하였다고 주장한 데서 비롯되었다.⁵⁾ 그는 신명기 32장 13절을 근거로 이스라엘 땅은 척박한 땅이었기 때문에 젓과 꿀이 흐르는 땅을 동경했고, 이 표현이 종말론적인 시대에 일어날 자연의 변화 가운데 한 모습으로 해석한 것이라고 주장한다(을 3:18, 암 9:13).⁶⁾

아이히로트(Eichrodt)는 젓과 꿀의 기원을 아리안족의 베다 종교에서 낙원과 낙원의 음식으로서 소개된 것으로부터 유래되어 이스라엘이 이를 낙원과 같은 풍요로운 땅과 풍요를 비는 표현으로 받아들였다고 주장한다.⁷⁾ 스텐(P. D. Stern)은 복지 유형의 기원을 우가릿 신화 중 하나인 바알의 죽음과 부활의 이야기에서 ‘하늘에서 기름이 내리고 강들에 는 꿀이 흐르는’이라는 구절에서 유래한 것으로 본다.⁸⁾ 그에 따르면 젓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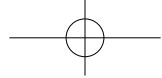
된 경제상황을 반영하는 것이며 이스라엘의 땅이 비옥한 경작지가 아닌 목초지대에 불과하다는 사실이 이를 뒷받침해 준다. E. Levine, "The Land of Milk and Honey," *JOT* 87(2000), 43-57. 김회권도 아시아 7장 21-25절에 나타난 '버터와 꿀'은 농경 사회에서 목축 사회로 후퇴하며, 광야 생활로의 퇴행을 뜻하는 것으로 농업 작황의 대 실패를 뜻하는 저주와 심판으로 해석한다. 김회권, 「성서주석: 아시아 땅의 신학」,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6), 206-207.

5) H. Gressmann, *Der Messias*(Göttingen, 1929), 157.

6) 위의 책, 155-158.

7) H. Gross, *Die Idee des ewigen und allgemeinen Welt im Alten Orient und im Alten Testament*(1956), 74에서 재인용.

8) P. D. Stern, "The Origin and Significance of the Land Flowing with Milk and Honey," *VT* vol. XLII, no. 4(1992), 554에서 재인용.



과 꿀이 흐르는 땅은 단순히 이스라엘의 목축 경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에게 땅의 비옥함과 풍요를 주는 신으로 알려진 바알의 유혹을 피하고 야훼 편에 서서 투쟁하라는 선전문구(counter slogan)이다(출 3:8).⁹⁾

그로스(H. Gross)는 복지 유형의 기원을 찾는 것보다 이러한 표현은 고대의 다른 근동 문화에서 흔히 찾아 볼 수 있는 문학적인 표현이라는 사실을 강조한다. 그는 구데아(Gudea)의 인장들에서 제의 음식으로 소개된 문구들 가운데 ‘꿀과 버터’, ‘우유’와 함께 언급된 ‘꿀, 버터, 포도주, 옥수수’등이 언급된 예라든가, 수메르의 제의 본문에서 ‘꿀과 포도주’가 신의 보호아래서 풍요로워지기를 묘사하는 예를 들었다.

복지 유형이 이스라엘 땅에 대한 사실적인 묘사로서 척박한 목초지대에 어울리는 표현이라는 견해도 있는 반면(에탄 레빈, 이형은)¹⁰⁾ 이스라엘의 땅이 과거 한때에는 풍요롭고 비옥한 곳이었음을 반영하는 구절로 보기도 했다(티게이, 메이즈).¹¹⁾ 가나안 땅이 포도주와 꿀 등이 넘쳐나는 풍요로운 땅이었다는 묘사는 고대의 한 애굽 문헌인 ‘시누헤의 이야기’에도 남겨져 있다.¹²⁾ 민수기 13장 27절에서 정탐꾼이 가나안 땅에서 가져 온 것은 포도뿐이었지만 그 땅을 복지 유형으로 묘사한 것도 풍요로운 땅이라는 사실적인 언급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젓과 꿀이 흐르는 땅이 가나안 땅에 대한 고유한 명칭이 아니라 고대 근동지역에서 통용되던 일반적인 표현이라는 사실은 민수기 16장에서 고라와 그에 동조하는 무리들이 반란을 꾀하면서 모세에게 불평하던

9) 위의 책, 554-557.

10) E. Levine, "The Land of Milk and Honey," 43-57; 이한영, "구약윤리와 토지", 『구약논단』 제18집(2005), 152-161.

11) J. H. Tigay, *The JPS Torah Commentary: Deuteronomy*, (Philadelphia: The Jewish Publication Society, 1996), 437-438; A. D. H. Mayes, *Deuteronomy*, (London: Marshall, Morgan & Scott Pub. LTD, 1991), 175.

12) J. B. Pritchard(ed.), *The Ancient Near East*, vol. I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73), 7.



말 가운데 애굽 땅과 가나안 땅을 동시에 ‘젓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표현한 예에서도 찾아 볼 수 있다(민 16:13). 그러므로 그로스는 젓과 꿀은 제의에서 사용될 만큼 고대 근동지역에서 가치가 높은 식품들로 인식되었기 때문에 이것의 풍요에 대한 공동체의 경험들과 축복된 태고시대에 대한 동경이 결합된 문학적인 표현들에서 유래한 것으로 상징과 사실적인 묘사가 함께 반영되었다고 말한다.¹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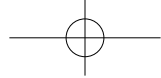
한편 복지 유형을 언약의 관점에서 해석해야 한다는 견해는 에탄 레빈과 앙드레 라코크(André LaCocque)에 의해 시도되었다. 레빈은 황무지나 최상의 비옥한 땅은 하나님의 언약을 불필요하게 하지만 ‘목초지대’라는 중성적 성격은 언약의 조건에 적합하다는 것이다.¹⁴⁾ 앙드레 라코크는 ‘흐르다’라는(주브) 동사의 용례를 살펴보고 땅은 사막에서 물을 제공한 암석처럼 이스라엘의 파트너가 되어 율법을 수행하는 장소가 되어야 한다는 언약의 관점에서 해석한다.¹⁵⁾

신명기에서 사용된 복지 유형도 위와 같이 고대 근동지역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던 풍요로운 땅이라는 이미지를 받아들인 것일까? 신명기에서 이 표현양식이 초실절 제의 때 신앙고백의 한 구절(26:9)로, 혹은 십일조 규례를 준수한 후 복을 비는 기도문(26:15) 가운데 나타나거나 어떤 의식(27:3)과 관계된 문맥에서 사용되었다면 그 복지 유형을 고대 근동지역에서 제의 때 사용되었던 의미와 유사하다고 해석할 수 있는가? 신명기의 복지 유형이 목축업을 기반으로 하는 고대 근동사회에서 풍요를 기원하는 제의나 일반적인 문학적인 표현의 흔적을 지니고 있었을 가능성은 충분하다. 그러나 신명기에서 일관성 있게 나타나

13) H. Gross, *Die Idee des ewigen und allgemeinen Welt im Alten Orient und im Alten Testament*, 74-75.

14) 위의 책 43-57. 이한영도 에탄 레빈의 견해에 동의하며 윤리적 관점에서 접근하여 이 표현양식의 언약적 의미를 강조하였다. 이한영, “구약윤리와 토지,” 152-161.

15) André LaCocque, “The Land in ‘D’ and ‘P,’” hrsg., M. A. Klaus-D. Schunck, *Dort ziehen Schiffe dahin...: Beiträge zur Erforschung Des Alten Testaments Und Des Antiken Judentums.*(Frankfurt am Main: Perter Land, 1996), 97-98.



는 특징은 복지 유형은 땅 자체에 대한 묘사로서만이 아니라 언제든지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 혹은 ‘야훼께서 수여하신 땅’이라는 표현양식과 함께 나타나 땅의 역사적 기원이나 땅의 원천적 제공자인 야훼를 각인시키는데 있다. 무엇보다도 신명기에서 나타난 복지 유형은 대체로 율법을 강조하는 문맥에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신명기의 복지 유형은 독립적으로 살펴 볼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신명기의 복지 유형이 사용된 맥락과 구조를 살펴보는 주석적 연구를 통해 어떤 해석학적 의미가 있는지를 찾아보기로 한다.

3. 구약에 나타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의 분포와 유형

복지 유형은 주로 רבבש חלב ודבש ארץ זבת (에레츠 자밧 할라브 우드바쉬)의 형태로 나타나지만, 때로 ארץ (에레츠)가 없는 רבבש חלב ודבש (자밧 할라브 우드바쉬)로 나오거나(신 31:20; 겔 20:6), 한정형으로 나온다(민 14:8; 겔 20:15). רבבש חלב ודבש ארץ와 רבבש חלב ודבש는 다른 땅 표현양식과 같이 나타나 동격으로 나오며, 한정형의 경우도 관계대명사절이라는 구문상의 차이는 있지만 의미에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니다. 동사 ורב(주브)는 항상 분사형으로 나타난다. 지금까지 수여 유형, 맹세 유형, 점유 유형이 모두 신명기에서 가장 많이 나타난 것과 달리 복지 유형은 신명기외에서 13회가 사용되었다. 복지 유형은 다른 땅 표현양식들과 결합되지 않고 단독으로 쓰인 경우와 다른 표현양식과 결합된 형태, 2개 이상의 표현양식과 결합한 복합형으로 크게 나눌 수 있다. 신명기 복지 유형의 특징을 알기 위해 먼저 구약에 나타난 복지 유형의 분포와 유형을 살펴 볼 필요가 있다.

1) 단독형(출 3:8, 17; 33:3; 민 13:27, 14:24)

단독 복지형은 신명기에서는 나타나지 않으며 출애굽기와 민수기에



서만 나타난다(출 3:8, 17; 33:3; 민 13:27; 16:14). 단독 복지형은 주 문장의 동사 עלה(알라) 동사와 그것의 히필형이나 בא(바)동사와 그것의 히필형으로 나타나고 있으므로 두 유형으로 세분할 수 있다.

(1) העלה(헤엘라)와 עלה(알라)

복지 유형이 나오는 문장의 주 동사가 העלה(출 3:8, 17)와 עלה(출 3:17)로 나타나는 곳은 출애굽기뿐이다.¹⁶⁾ 두 동사의 주어는 모두 야훼로 나타나며 העלה가 나온 경우는 출발지와 목적지가 명시되고 있어 이스라엘에게는 고난의 땅이었던 애굽으로부터의 구원이 강조되고 있다. 이 유형은 모세 소명을 다루는 내용에서 땅 약속이 나타나는 경우(출 3:8, 17)와 야훼의 여정지시에서 나타난다(출 33:3). ‘젓과 꿀이 흐르는 땅’은 ‘아름답고 광대한 땅’(출 3:8)이나 ‘가나안, 헷, 아모리, 브리스, 히 위 족속의 땅’(3:8, 17)과 동격으로 나오는 점이 특징이다.

(2) בא(바)와 הביא(헤비)

복지 유형이 בא 혹은 הביא 동사와 함께 나오는 경우는 민수기에서만 2회 나타난다(민 13:27; 16:14). הביא 동사의 주어는 야훼로, בא 동사의 주어는 정탐꾼들이다. 출애굽기에서는 복지 유형이 다른 땅에 대한 묘사와 함께 나오지만 민수기에서는 단독 점유 유형처럼 단독으로만 나온다. 이 유형이 나오는 문맥은 가나안 땅으로 진입하기 위한 첫 시도로 정탐을 보내고 그들의 보고를 받는 곳에서(민 13:27), 그리고 고라 일당이 야훼께 반역하여 모세에게 불평하는 내용에서 나타난다(민 16:14).¹⁷⁾ 민수기에서 복지 유형이 단독으로 나오는 경우는 땅 자체에

16) 민수기 16장 13절도 복지 유형이 나타나지만 여기에서 표현된 ‘젓과 꿀이 흐르는 땅’은 가나안 땅이 아닌 애굽 땅을 가리키고 있어 제외하기로 한다.

17) 복지 유형이 הביא 동사와 함께 나오는 경우는 민수기 14장8절과 신명기 26장9절에서도 찾아 볼 수 있지만 두 구절은 수여 유형과 결합되어 나오고 있어 결합형에 포함시키기로 한다.



대한 묘사에 강조점이 놓여있다.

2) 결합형

복지 유형은 단독형보다는 다른 땅 표현양식들과 결합하여 나타나는 유형이 더 많다.¹⁸⁾ 이 유형은 맹세 유형이나 수여 유형과 결합되거나 2개 이상의 땅 표현양식과 결합되어 나타난다.

(1) 맹세 유형과 결합(출 13:5; 신 6:3; 11:9; 31:20; 수 5:6; 렘 11:5; 겔 20:6)

복지 유형이 맹세 유형과 결합되어 사용된 경우가(8회)¹⁹⁾ 수여 유형보다 더 많이 나타난다(2회). 맹세 유형 중 주로 נִשְׁבַּע(니쉬바으)형이지만 נִבְרַח(딤베르)형(신 6:3)²⁰⁾ נִשָּׂא(나사 야드)형(겔 20:6)도 발견 된다. 율법 준수에 대한 권고에서 그 약속으로 나오는 복들이 땅과 관련해서 나타난 경우(신 6:3, 11:9)와 불순종을 경고하는 문맥에서 나타난다(신 31:20). 그밖에는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불순종을 경고하는 문맥에서 나타난다(신 31:20). 그밖에는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불순종한 역사를 회상하는 내용 가운데에서 나타난다(수 5:6; 렘 11:5; 겔 20:6). 출애굽기 13장 5절에 나오는 복지 결합형은 무교절 준수의 시기와 관련되어 사용되었다.

(2) 수여 유형과 결합(민 14:8; 신 26:9)

복지 유형이 수여 유형과 결합한 경우는 민수기 14장 8절과 신명기 26장 9절이다. 민수기 본문은 백성들이 가나안 땅 진입을 포기하고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말할 때 이들을 설득하려는 갈렙의 말에서 나타난다. 신명기 본문은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서 지은 농사의 첫 수확에 대

18) 단독형은 5회이며 복지 유형에서 다루는 결합형과 복합형의 용례는 총 14회로 나타난다.

19) 신 6:3; 11:9; 31:20; 출 13:5; 수 5:6; 렘 11:5; 32:22; 겔 20:6.

20) 신명기 6장 3절에 나타난 נִבְרַח(딤베르)는 땅에 대한 맹세 보다는 자손 번성과 관계된 약속이다. 따라서 6장 3절에 나타난 복지 유형은 맹세 유형과 결합된 형이 아니라 단독형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6장 3절의 문장은 땅 약속으로 읽을 수 있는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비록 앞에서 6장 3절 נִבְרַח에서 나오는 표현양식은 땅 맹세 유형에 포함시키지 않았지만 율법 준수와 관련된 권고에서 나와 넓은 의미에서 이 유형에 속하는 것으로 보았다.



해 감사드리는 제의의 신앙 고백문으로 나온다.

3) 복합형(레 20:24; 신 26:15; 27:3; 겔 20:15, 렘 32:22-23)

복지 유형이 2개 이상의 표현양식과 결합된 경우는 수여 유형과 맹세 유형의 결합 형태가 3회이며(신 26:15; 27:3; 겔 20:15) 점유 유형과 수여 유형의 결합 형태도 있다(레 20:24). 복지 유형을 포함해 수여, 맹세, 점유 유형과 결합된 땅 표현양식은 예레미야에서 발견된다(렘 32:22-23).

첫째로 복지 유형이 수여 유형과 맹세 유형과 결합된 형태는 십일조를 드린 후의 기도문(신 26:15)과 에스겔의 회개 기도문(겔 20:15)에서 나타나거나, 모세와 레위 제사장들과 공동 연설에서 이스라엘이 요단을 건넌 후 기념비를 세우라는 지시에서 나타난다(신 27:3). 이 복합형은 모두 예전과 관계된 내용에서 나온다고 말할 수 있다.

둘째로 복지 유형이 점유 유형 및 수여 유형과 결합된 경우는 레위기 20장 24절이 유일하다. 이 구절은 야훼께서 이스라엘에게 가나안 땅의 민족들이 범한 가증한 죄를 따르지 말 것을 경고하는 문맥에서 나온다. 레위기 20장 24절이 포함된 22-27절은 경고의 양식을 보이며 ‘이스라엘이 야훼 앞에서 거룩해야한다’는 소위 성결법전의 핵심 사상을 전하는 부분이다. 24절은 한 구절이지만 세 가지의 땅 표현양식과 함께 그 중심 사상을 설명하는 고도의 신학적 표현이라고 말할 수 있다.

레 20:24 전상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말했다

전중 너희, 너희가 그들의 땅을 차지할 것이다(점유 유형)

전하₁ 그리고 나, 내가 너희에게 그것을 차지하라고 그것을 줄 것이다(수여 유형)

전하₂ 젃과 풀이 흐르는 땅을(복지 유형)

후상 나는 너희 하나님 야훼이다

후하 내가 너희를 그 민족들로부터 구분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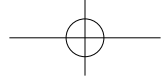


24절의 전반절은 가증한 범죄를 지어 쫓겨난 가나안 땅 민족들을 대신해 이스라엘이 땅을 차지한다는 내용이 나오며, 후반절은 이스라엘을 그들과 구별하신 야훼에 초점을 둔다. 결국 이 구절의 중심은 땅의 수여자이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으로 소개되고 있는 야훼이다. 이스라엘이 땅을 차지하는 것은 '점유'보다는 다른 민족들을 대신한다는 의미에 강조점이 놓여있는 것 같다(24전중). 이어서 야훼의 땅 수여와 야훼께서 하신 일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24전하, 후). 22-27절의 단락에서 '구별하다'(הבדיל)라는 말의 중심 개념은 이스라엘과 짐승, 새, 곤충류까지 관련짓고 있으나 땅은 그 대상이 아니다. 땅은 이스라엘이 야훼께서 혐오하시는 '다른 민족들의 규례들'(חוקות הגוים)이 아닌 야훼의 규례와 법도를 행할 장소로서 의미가 있다. 이런 점에서 '젓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이상적인 묘사는 야훼의 구별된 민족으로 새로운 시대를 열어갈 이스라엘에게 적합하다.

셋째로 예레미야 32장 22-23절 전반절에서 나타나는 유일한 복지 유형으로 무려 네 개의 땅 표현양식이 결합되어 있는 독특한 형태이다. 본문은 야훼께서 예레미야에게 아나돗의 땅을 사두어 훗날 포로로부터 돌아왔을 때, 회복할 수 있게 하라는 지시와 예레미야의 회개 기도문에서 나오는 구절이다(렘 32:6-44). 예레미야는 기도를 통해 애굽 땅에서부터 광야생활을 거쳐 가나안 땅에 정착하기까지 야훼의 자비를 회상하여, 이스라엘의 불순종을 대비시킨다(렘 32:21-23). 하나님은 젓과 꿀이 흐르는 땅을 이스라엘에게 주었지만 그들이 율법을 지키지 못해 그 복된 땅을 칼과 기근과 전염병이 난무한 황무지로 만들었다는 것이다.

4) 신명기

신명기의 복지 유형은 단독으로 나오는 경우는 없고 다른 땅 표현양식들과 결합하여 나온다. 신명기의 복지 유형은 결합형이 4회이며 복합형이 2회 나타난다. 복지 유형 중 결합형은 율법 준수를 위한 권고와



경고에서 약속으로 나타나며(신 6:3; 11:9; 31:20) 복합형은 구약의 다른 성경과 같이 예전과 관련해서 나온다(신 26:9, 15; 27:3). 복지 유형은 עֲשֵׂה(아사), הֶאֱרִיךְ(헤에릭), בָּרַךְ(베렉)등의 주 문장의 동사들과 연결되어 율법 준수를 강조한다. 신명기 외에서는 복지 유형이 주 문장의 동사와 결합되어 야훼의 땅 인도나(הָבִיאָה, העלה) 땅 수여 약속에서 나타난다.

4. 신명기의 ‘젓과 꿀이 흐르는 땅’에 대한 주석적 연구

1) 6장 3절

신명기 6장은 호렙산의 회상으로부터 가까운 미래에 하나님께서 주신 땅에서 이스라엘이 율법을 행하며 살게 될 삶을 향해 있다. 6장에서 첫째로 나타난 땅 점유 유형(6:1)은 자녀들에 대한 율법 교육의 문맥에서 사용된 신명기의 전형적인 땅 표현양식이다(4:5, 14; 5:31과 비교할 것). 야훼께서 모세에게 백성들을 가르치도록 주신 ‘명령과 규례, 법도’는 곧 점유하게 될 땅에서 행해야 할 것들으로써 그곳에서 백성들은 모세처럼 자신들의 자녀에게 이 율법을 가르쳐야 한다(6:2).

땅 표현양식들이 나타난 둘째 자리는 율법 준수를 고취시키기 위해 동기를 부여하는 약속으로, 전환 단락인 5장 32-33절과 6장 1-3절에서 집중적으로 나타난다. 율법 준수의 결과로 나타날 복은 땅위에서 누릴 것들로 나타나는데 ‘장수’(5:33, 6:2), ‘잘됨’(טוֹב, טָב)(5:33, 6:3, 24), ‘생명’(חַיִּים)(5:33, 6:24), ‘자손의 번성’(6:3) 등이다. 이스라엘이 율법 준수를 조건으로 받을 축복들은 기본적으로 땅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는 복들이다. 특히 자손 번성에 대한 복은 율법 준수를 조건으로 한 복들 가운데 하나로서 처음 나타난다. 6장 3절은 ‘젓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복지 유형이 신명기에서 처음 등장한다는 점에서도 주목할 만한데 본 문상의 문제가 있기는 하지만 풍요로운 땅이라는 묘사는 자손 번성의



복과 어울려 해석상의 큰 어려움은 없다.²¹⁾ 율법 준수를 조건으로 한 땅 점유의 직접적인 약속은 6장 18절에서 더 분명하게 나타난다(4:1).

2) 11장 9절

신명기 11장은 신명기 율법 규정(12-26장)을 앞둔 서문의 마지막 부분으로서 앞에서 나온 권고와 교훈들을 종합하면서 이스라엘이 율법을 지켜야 할 당위성을 역설(力說)하고 율법에 대한 준수를 고취시키기 위한 기본적인 원리들을 재천명(再闡明)하는 자리이다. 11장의 권고 양식은 야훼에 대한 속성이나 그의 행사에 근거함으로 인해 이스라엘이 권고를 이행해야 할 당위성으로 설득하고 있다. 11장 2-7절의 권고도 다른 형식이지만 애굽에서부터 광야까지 야훼께서 하신 크신 행사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11장 8절 이후의 권고는 앞 단락에서 충분히 개진한 야훼에 대한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조건부 권고와 경고, 복과 저주와 같은 다양한 형식으로 야훼께서 주시는 모든 명령을 지킬 것을 권고하면서 약속을 전면에 내세운다. 권고에 대한 근거와 권고에 대한 동

21) 신명기 6장 3절에서 본문상의 문제점이란 후반절의 히브리어 문장이 난해한데서 비롯되었다.

כֹּאשֶׁר דִּבֶּר יְהוָה אֱלֹהֵי אֲבוֹתָיךָ לְךָ אֲרִיץ וּבַת חֶלֶב וּרְבֹשׁ (6:3후)

이 문장은 '네 조상들의 하나님 야훼께서 내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맹세하신 바와 같이', 혹은 '네 조상들의 하나님 야훼께서 내게 맹세하신 바와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라고 해석할 수 있다. 전자는 야훼께서 땅을 약속해 주신 의미로, 후자는 땅 보다는 자손의 번성의 약속으로 초점이 옮겨진다. 히브리어 문법으로 는 양자의 해석이 다 가능하지만 전자의 해석과 같은 용례가 구약에서는 발견되지 않는다는 점과 후자의 해석도 모호한 것이 사실이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LXX역은 3절 후반절의 '네게(ךָ)'를 '주는 것(נָתַן)'으로, 페쉬타역은 '네게 주다(נָתַן לְךָ)'로 읽고 있다. 이 읽기에 따르면 '네 조상들의 하나님 야훼께서 (네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겠다고 말씀하신 바와 같이'라는 땅 약속의 의미로 본 것이다. 라틴어역인 불가타도 '네 조상들의 하나님 야훼께서 내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약속하셨다'고 읽는다(신 26:15; 27:3과 비교할 것). 현대 영역본 가운데에는 NJB만이 LXX역과 페쉬타역을 따르고 있다. 비록 신명기는 땅 약속에 집중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족장 약속 가운데 자손 번성에 대한 약속을 읽은 것은 아니며(신 1:10-11), 구약의 다른 곳에서 땅의 이미지나 땅과 연결된 자손 약속에 대한 언급도 자주 나타난다(창 13:16; 26:4; 28:14; 출 1:7). 그러므로 신명기 6장 3절은 고대 역본들처럼 수정해서 읽지 않아도 문맥을 이해하는 데에 큰 무리는 없다 고 본다. 현대 역본들 가운데 영역본의 대다수와 한글역 성경이 모두 MT의 본문 읽기를 지지한다. 같은 견해는 M. Weinfeld, *AB Deuteronomy 1-11* (New York: Doubleday, 1991), 322-323; Christensen, D. L. *WBC Deuteronomy 1:1-21:9* (Nashville: Thomas Nelson Publishers, 2001), 정일오 역, 「신명기 1:1-21:9」(서울: 솔로몬 출판사, 2003), 348 참고.



기 부여가 함께 제시될 때 청중의 자발적인 순종의 기대를 높일 수 있으므로 두 권고 방식은 분리될 수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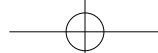
복지 유형이 나오는 신명기 11장 8-17절은 권고 형식으로 율법 준수 및 야훼 경외를 조건으로 받을 수 있는 약속들을 말해준다. 율법을 지켜야 한다는 권고의 동기로서 땅 약속과 장수의 복이 나타난다. 땅은 율법 수행에 대한 보상으로 주어지는데(8), 그 땅에 대한 묘사가 두 가지로 나타난다. 하나는 조상들에게 오래 전 약속했던 땅이란 묘사이며, 다른 하나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이 땅은 장수의 복을 누리는 터전으로 나온다. 이스라엘 땅은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된 땅이요, 풍요로운 땅이다. 이 땅에서 장수를 누리는 것이 율법 준수의 댓가로 주어지는 것이 분명하지만 앞에서 야훼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행하신 일들이 전제되어 있으며 땅의 수여자요, 약속의 성취를 이루시는 분임을 먼저 선포하고 있음은 그 약속들을 일방적인 보상의 의미로만 해석해서는 안 될 것이다.

이스라엘이 율법 준수의 결과로 누릴 땅이 풍요로운 땅이라는 사실은 신명기 8장 7-9절에서 잘 나타난다. 폰 라트는 신명기 이전에 찬양 시로서 존재했을 가능성을 제시했으며²²⁾ 바인펠트는 8장의 땅에 대한 묘사는 고대 근동의 조약 문서에서 하사품으로 봉신에게 땅을 줄 때 땅의 자원에 대한 목록과 유사하다는 사실과²³⁾, 8장 5-10절이 유대교의 예식문에서 축도로 사용되었던 흔적을 쿰란 문헌에서 발견했다.²⁴⁾ 8장 7-9절은 다소 수사학적인 과장이 있기는 하지만 대체로 가나안 땅에 대한 전통적인 묘사에 속한다는 사실은 한때 이 땅에서 살았었던 한 애굽인이 남긴 ‘시누헤의 이야기’(The Story of Sinuhe)라는 성경 외의 문헌(주전 20세기경)에서도 증명된다.

22) 폰 라트, 『신명기』, 75.

23) M. Weinfeld, *Deuteronomy and the Deuteronomistic School*(Eisenbrauns Winona Lake, Indiana: Oxford University Press, 1992), 71-7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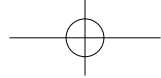
24) M. Weinfeld, *Deuteronomy 1-11*, 392-394.



신명기 8장 7-9절(사역)	사누헤의 이야기(ANE 18-221)
7절 네 하나님 아훼께서 좋은 땅으로 인도하실 때 7후 물이 있는 와디 ²⁵ 의 땅, 샘과 지하수가 계곡과 산에 흐르는 [땅]	그것은 야(Yaa ²⁵)라고 불리는 땅이었다. 그 땅에는 무화과 가 있었고 포도 가 있었다. 그 땅에는 물보다 도 포도주가 더 많았고 꿀 이 넘쳤으며 올리브 가 많 았다. 각종 과수 나무들이 있었으며 보리 와 에메르 (emmer ?)가 있었고 소 때는 수를 셀수 없을 정도 로 많았다... 그들이 내게 매일 양 식으로 빵 과 포 도주를 주고 사막의 야생 고기 외에 요리한 고기와 구운 닭고기를 주었고... 모든 종류의 요리는 유유 로 만들어졌다.
8절 밀과 보리 와 포도 , 무화과 와 석류의 땅 8후 올리브 ²⁶ 기름과 꿀 의 땅 ²⁷	
9절 네가 그곳에서 빵을 먹는데 부족함이 없는 땅, 그 안에서 아무것도 모자라지 않는 [땅]	
9후 그곳의 돌은 철이며 네가 그곳의 산지에서 구리를 캘 수 있는 [땅]	

신명기 이전에 고대 근동에 알려진 가나안 땅에 대한 묘사가 존재했었을 가능성은 높다.²⁹⁾ 그러나 신명기에서 가나안 땅에 대한 전통적인 묘사가 나타나는 자리는 땅에 대한 정보를 알려주는 차원을 넘어서, 그 땅으로 인도하고 좋은 땅을 주신 아훼를 찬양하라는 목표를 향하고 있

- 25) '와디'로 번역된 히브리어 낱말은 נַחַל(나할)이다. נַחַל은 현대의 지리적 용어로 '와디'와 동일한 의미이다. '와디'란 건기에는 메마른 땅이나 우기에는 물이 일시적으로 흐르는 건조지역의 특수 하천 형태를 말한다. 이 하천은 건조 기후 지역인 중동에서만 볼 수 있어 '와디'라고 부른다. 정장호 편저, 『地理學辭典』(서울: 경인문화사, 1984), 318. 히브리어는 영구 하천인 경우 נָהָר(나하르)로, 와디는 נַחַל로 구분한다. 현대 히브리어에서도 물이 있는 נַחַל과 물이 없는 נַחַל을 구분한다. Y. Zvi, "Mighty Rivers in a Desert Land," Eretz, no. 64, (1999), 10-12. 그러므로 신명기 8장 7절의 נַחַל נָהָר (나할레 마임)은 '물이 있는 와디'로 번역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 נַחַל의 용례와 정의에 대해서 G. A. Smith, *The Historical Geography of the Holy Land* (The Fontana Library, 1968), 439-440 참고.
- 26) 신표준, 새번역, 공역과 공역개, 카톨릭새번역은 히브리어 אֵיל(자이트)을 '올리브'로 번역했다. 개역과 개정역이 번역한 '감람'은 중국 남부에서 자라는 나무로 지중해 기후 지역에서 자라는 올리브와는 학명이 다른 종류의 나무로 알려져 있다. 정정숙, 『성서식물』(서울: 크리스찬 뮤지엄, 2007), 37-38.
- 27) 가나안 땅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에 대한 소개에서 MT 본문은 8장 8절 전반절 '밀과 보리, 포도나무, 무화과, 석류의 땅'과 8장 8절 후반절 '올리브 기름(נֵיט וַיִּי)과 꿀의 땅'으로 두 부분으로 나누고 있으나 개정은 '밀과 보리의 소산지'와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고 구분하여 마치 곡식 종류와 과수 농산물로 구분한 듯이 보인다. 아마도 MT 본문의 이러한 구분은 1차적인 농산품과 1차 자원을 가공한 생산품인 특수 농산품으로 구분하려는 의도인 것 같다. 올리브에서 추출한 기름과 대추야자 등의 당도가 높은 과일로 만든 꿀은 고대 이스라엘과 유다의 주요 수출 품목 중의 하나로 에스겔 27장 17절에 나타난다. 그러므로 MT 본문대로 읽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표준, 새번역, 공역, 공역개, 카톨릭새번역도 MT 본문을 따라 번역했다.
- 28) ANE에서는 야(Yaa)라고 읽고 아히투브(S. Ahituv)는 '아라루'(Araru)라고 읽는다. 아히투브에 따르면 이 지역은 요단 동쪽 북부에 있는 골란 지역의 한 도시이거나 레바논 베카 계곡의 북쪽에 있는 지역일 가능성을 제시하지만 그는 후자를 더 선호한다. S. Ahituv, *Canaanite Toponyms in Ancient Egyptian Documents*(Jerusalem: the Magness Press, 1984), 66-67.
- 29) 신명기 8장 8절에 나타난 가나안 땅 묘사와 유사한 내용을 보여주고 있는 고대 근동 문헌들의 예에 대해서는 M. Weinfeld, *Deuteronomy 1-11*, 391-392 참고.



으며 이스라엘과의 언약 관계에서 사용되었다. 따라서 11장 9절의 복지 유형은 이스라엘이 들어가 살 가나안 땅이 좋은 땅이며 이곳에서 율법을 준수하며 살아갈 때 풍요로운 삶을 살 것이라는 언약적인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이스라엘이 율법을 준수하며 살아갈 때 누릴 복들이 절대적으로 하나님께 달려 있음은 뒤이은 10-12절에서 이스라엘 땅의 현실적인 묘사 속에서 또 한 번 강조 된다. 이스라엘이 들어가 살 땅은 애굽 땅과 대조되고 있는데 그 차이는 농사에서 가장 중요한 물을 어떻게 제공하는냐에 달려있다. 애굽은 나일 강을 끌어들이어 농사짓는 관개수로(灌溉水路) 방식(11:10후)이므로 인간의 노동력이 중요하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마시는(ἰνω) 땅’(11:11)으로 전적으로 오직 강우량(降雨量)에 의존해야 한다. 이 표현은 인간의 힘없어도 비로 충분한 땅이라는 의미가 있는 반면³⁰⁾ 인간의 한계를 보여주는 땅이라는 뜻도 된다. 농사를 위해 오직 하나님께 의지해야 하는 땅과 사람의 힘이 더 중요한 애굽 땅의 대비는 이스라엘에게 펼쳐질 새로운 시대의 운명이 전적으로 야훼께 달려있다는 사실을 말해준다.

3) 26장 9, 15절

26장은 토지소산의 첫 열매를 야훼께 바치는 제의(1-11)와 십일조(12-15) 규정을 다루고 있으며 12-26장의 신명기 법전과 모세의 둘째 연설을 마무리하는 결론적 권고(16-19)로 이루어져 있다. 26장이 법 규정을 다루기는 하지만 제의 때 드리는 고백문과 기도문을 담고 있어 12장처럼 종교 의식에 대한 관심으로 돌아가고 있으며 결론적인 권고는 모세의 둘째 연설과 연계된다는 점에서 이전의 법 규정들을 다루는 본문들과 구별된다.

30) J. G. McConville, *Deuteronomy*(Leicester: InterVarsity Press, 2002), 204.



(1) 첫 수확에 대한 제의와 신앙고백문(26:9)

1-3절 전반절은 제의의 도입구로서 제의를 드릴 시기와 해야 할 일을 지시하고 있다. 1절에 나타난 땅 표현양식은 이스라엘이 야훼께서 '상속지'로 주실 땅에 도착한 이후 그 땅을 차지하고 정착하여 땅 점유를 완성한 미래의 시점을 나타낸다. 2절 전반절에 나오는 땅 표현양식은 제의의 시기를 첫 농사의 수확 때로 정하고 있으며 이 표현양식은 야훼께서 택하신 제의 장소와 연결되어 있다. 첫 농사를 지은 수확의 감격과 감사를 표현하는 종교 의식은 1-2절 전반절의 땅 표현양식을 통해 이스라엘의 가나안 땅 진입과 정착의 역사를 전제한다.

이 제사 의식의 핵심은 제사 드릴 때 개인적으로 말해야 하는 신앙고백문인 데 고백은 두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다(3후, 5후-10전). 첫째 고백은 '우리'가 야훼께서 맹세하셨던 그 땅에 도착했다는 보고이다(3후). 이 고백은 땅에 대한 관심을 표명하지만 단순히 수확물을 생산해 내는 땅이 아닌, 구원사적인 땅의 의미를 지닌 것으로 전제함으로써 둘째 고백의 내용과 연결 된다.³¹⁾ 둘째 고백은 야훼께서 이스라엘이 어려움에 빠졌을 때 그들을 구해주셨던 역사를 회상하는데, 야곱의 역사에서부터 출애굽해서 땅의 인도까지 그 과정을 요약한다(5후-10전). 이 고백문에서 야훼의 땅 인도는 결말에 나와 구속사의 절정을 이룬다. 9절에 나온 복지 유형의 표현양식은(9후하) 온갖 농산물을 생산해 낼 수 있는 땅 자체에 대한 묘사로서 땅의 자연적 의미를 확인한다. 그러나 이 복지 유형에 앞서 땅은 야훼께서 주신 것임을 전제하고 있다(9후상).

(2) 십일조를 바친 후 드리는 기도문(26:15)

26장 12-15절은 3년째 되는 해에 십일조로 드려진 것들은 특별히 레위인과 나그네, 고아, 과부들에게 주라는 규정과(12) 그 규정을 이행한

31) 박동현, 「구약성경과 구약학」(서울: 장로회신학대학교 출판부, 1999), 261의 본문 구조 참고.



후에 야훼께 드리는 기도문이 나온다(13-15).³²⁾ 그 십일조는 ‘거룩한 것’ שְׁקֵטָה(학코테쉬)로 구별된 것이므로 레위인과 나그네, 고아, 과부들에게 주는 용도 외에는 부정한 곳에 두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않았다는 기도자의 고백이 나온다(13-14). 이 기도문을 통해 3년째 해에 바쳐진 십일조는 오로지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는 목적에 사용되어야 한다는 사회 정의에 대한 관심을 알 수 있다. 기도문의 마지막에서 모세는 야훼께 이스라엘과 땅위에 복이 내리도록 간구한다. 이 간구에서 땅 표현양식이 나타난다. 땅 표현양식은 맹세 유형과 복지 유형이 결합된 형태로 전형적인 형태는 아니다. 첫 수확물에 대한 제의의 고백문과 더불어 본문의 기도문에서 모두 복지 유형이 나오는 것은 이 유형이 예전문과 관계가 있다는 한 예를 보여준다.

4) 27장 3절

27장 1-8절은 모세와 장로들이 이스라엘에게 요단을 건넌 후 행해야 할 의식을 지시하는 내용이다. 1절에서 연설의 주체를 말하는 도입구와 ‘명령을 지키라’는 권고이후, 2-8절까지는 의식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돌을 세우고 석회를 발라 토라의 말씀들을 쓰라는 지시(2후, 3전, 4, 8)는 중복되고 있다. 그러나 전반부는(1후-3) 요단을 건너는 날에 할 일에 대한 총괄적인 지시로, 후반부는(4-8) 에발산에서 행할 일에 대한 구체적인 지시로 볼 수 있다.

전반부에서는 ‘때’를 가리키는 부사구가 2회 나타나 이스라엘이 행할 의식의 시기(2전, 3전)를 강조한다. ‘너희가 요단을 건널 날’(אֵת הַיַּרְדֵּן)과 ‘네가 요단을 건넜을 때’(בַּעֲבֹרְךָ)에서 말하는 시점은 24시간의 하루나 특정한 때를 뜻한다기보다는 1절의 הַיּוֹם(하יום)처럼

32) 이 규정은 14장 28-29절에 나오는 십일조 규정의 연장이라고 볼 수 있다.



긴급한 결정을 표현하는 신명기의 방식으로 여겨진다.³³⁾ 전반부에서는 의식을 집행할 장소를 지적하지 않는 대신 땅 수여 유형으로써 요단을 건너야 하는 곳으로 포괄적으로 언급된다. 이스라엘이 행할 일은 2절 후반절에서부터 3절 전반절에 이르기까지 나타나며 이 지시의 목적은 다시 땅 표현양식으로써 설명되고 있다. 의식의 목적은 야훼께서 약속 하셨던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기 위한 것이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이 토라의 말씀을 기록한 기념비를 세우는 일이 땅을 차지하기 위한 일과 연관되어 있다는 것이다.

이곳에서 나타난 땅 표현양식은 수여 유형에 복지 유형과 맹세 유형이 혼합된 복합형이다. 이러한 복합형은 이스라엘이 호렙산에서 출발할 때 야훼의 여정지시(1:8)로 처음 나온 이래,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땅으로 첫 진입 시도를 할 때 모세의 점유 지시(1:21)로도 나왔다. 여호수아가 에발산에서 이 의식을 거행한 뒤에(8:30-35) 본격적으로 가나안 땅을 차지하기 위한 전쟁에 나섰다라는 사실을 고려해 보면 신명기에서 복합형 땅 표현양식이 나타나는 곳은 땅 점유와 관계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또한 풍요로운 땅을 묘사하는 복지 유형이 이곳에 나오는 것도 요단을 건너 행할 의식이 땅 점유와 관련이 있음을 보여준다.

5) 31장 20절

31장 14절-23절은 야훼께서 모세의 죽음을 앞두고 직접 나타나셔서 모세와 여호수아에게 각각 지시하시는 내용이다. 야훼께서 나타나 말씀하시는 방식은 신명기를 통틀어 이례적인 일이다(31:14-15). 이전까지 야훼의 말씀은 이야기의 재 진술이나 명령을 중간에서 전할 때 모세를 통해 간접적으로만 들을 수 있었다.³⁴⁾ 야훼께서 모세에게는 증인의 노래를 만들 것

33) J. G. McConville, *Deuteronomy*, 388.

34) T. W. Mann, *WBC² Deuteronomy*(Louisville, Kentucky: Westminster John Knox Press, 1995), 164.



을(31:16전하-21), 여호수아에게는 땅 인도의 과업을 지시하신다(31:23).

모세에게 증인 노래를 만들라는 야훼의 지시는 이스라엘의 배교 성향으로 인한 그들의 부정적인 미래를 대비하는 것이니 만큼 ‘때’와 관련된 용어들이 많이 나타난다.³⁵⁾ 야훼께서 증인 노래가 필요한 시점을 강조한 것은 16-19절과 20-21절의 평행된 내용에서 찾아 볼 수 있다. 두 단락에서 각각 이스라엘은 야훼를 배반하여 언약을 파기하고(16, 20) 재앙과 환난을 초래하게 되는데(17, 21전), 그때에 모세의 노래가 증인이 될 것이라는 평행되는 내용을 반복한다(19, 21후). 그러나 두 단락은 똑같은 내용을 단순히 반복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미래에 배역하는 시기를 달리 하면서 결과적으로 그들은 지속적으로 배교할 것이라는 전망을 보인다.

첫째로 증인 노래가 필요한 때는 모세 사후를 언급한 것으로 보아 이스라엘이 그 땅에 도착한지 얼마 지나지 않은 시기를 뜻한다(16). 둘째로 증인의 노래가 필요한 때는 야훼께서 이스라엘을 땅으로 인도하신 후, 그들이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풍요로운 시기가 도래할 때(20)이다. 그때 이스라엘이 다시 야훼를 버려 고난을 자초할 수 있다는 것이다(21). 20절에 나오는 땅 표현양식은 둘째 시기와 관련되어 있다. 맹세 유형과 복지 유형이 결합된 표현양식은 이스라엘이 풍요를 누리는 시기를 표현하는데 일조하고 있다. 이스라엘이 좋은 땅에서 풍요를 누리는데 그 때는 그들의 배교로 인해 부정적인 미래상이 예고된다.

4. ‘젓과 꿀이 흐르는 땅’의 해석학적 의미

이상에서 신명기에 나타난 복지 유형을 주석적으로 고찰한 결과 다음과 같이 정리해 볼 수 있다. 신명기의 복지 유형이 사용된 방식은 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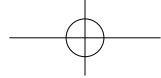
35) ביום ההוא (17, 18전), כִּי (18후, 20), עתה (19), ויהיה כִּי (21전), בטרים (21후).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로 복지 유형은 땅 점유에 대한 직접적인 약속보다는 땅에서 누릴 복들과 관련해서 2차적으로 사용되었다. 복지 유형과 관련된 복은 자손 번성(6:3)과 장수(11:9)로 나타난다. 장수와 자손이 번성하기 위한 토대로서 땅은 풍부한 산물이 나는 좋은 땅이어야 가능할 것이다. 따라서 이때 젓과 꿀이 흐르는 땅이 사용된 것은 자연적 의미로서 좋은 땅의 이미지로 사용되었다고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땅은 자연적 의미로 그치지 않고 신학적인 성찰로 나아간다. 자손 번성과 장수의 복이 율법 준수에 대한 보상으로 주어지는 약속임에는 틀림없으나 땅 수여자는 하나님이지거나 조상들에게 이미 약속하신 땅임이 전제되어 있다는 것은 복의 원리가 인간의 업적에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는 의미다. 결국 인간이 갈구하는 최상의 복과 그것을 누릴 수 있는 토대로서의 땅도, 율법 준수도 철저하게 야훼와의 관계에서만 가능하다는 것이 신명기의 복 이해임을 보여준다. 젓과 꿀이 흐르는 땅이 자손 번성과 장수와 같은 ‘생명’과 관련이 있다는 것도 땅, 복, 율법 준수, 이 세 가지는 불가분리의 관계임을 잘 말해준다.

둘째로 신명기의 복지 유형은 양식적으로 의식(27:3)이나 예전문(26:9, 15)에서 사용된 특징을 보여주며 다른 땅 표현양식들과 함께 땅 주제와 관련하여 출애굽 사건과 연결된 구속사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다. 이스라엘 역사에서 출애굽과 가나안 정착 과정을 하나의 구속사적 의미를 지니는 사건으로 연결한 것은 신명기 특징 중 하나이다.³⁶⁾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지은 농사의 첫 수확을 감사하는 제의를 드릴 때 신앙 고백 가운데 야훼의 땅 수여 사실이 언급(26:5-10)된다. 이스라엘이 고백해야 할 구속사는 족장사, 출애굽, 가나안 땅 수여와 정착으로 요약(26:5-10)되고 있다. 그리고 먼 미래에 이스라엘이 풍요를 누릴 때에 야

36) R. Albertz, *Religionsgeschichte Israels in alttestamentlicher Zeit I.*(Göttingen: Vanenhoeck & Ruprecht, 1992). 강성열 역, 『이스라엘 종교사 I』(서울: 크리스찬 다이제스트, 2003), 484.



혜를 배반하게 될 것이고 땅은 그 때 부를 증인의 노래의 한 부분으로 나타난다(31:20). 환난의 때에 이스라엘은 젓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신 야훼를 상기해야 한다. 여기서 사용된 복지 유형들도 풍요로운 땅, 좋은 땅이라는 자연적 의미를 내포하고 있지만 그 땅을 주신 야훼의 구속사적 은총에 강조점이 놓여있다.

특별히 신명기의 복지 유형에 내포된 구속사적 의미는 포로기를 전후로 한 예언서와 역사서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여 앞으로 이에 대한 연구가 더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예레미야 32장과 에스겔서 20장은 땅의 회복에 대한 주제를 다루고 있으며 여기에는 다른 땅 표현양식들과 결합된 복지 유형이 나타난다(렘 32:22-23, 겔 20:6, 15). 두 본문은 모두 신명기의 영향을 받고 있으며³⁷⁾ 기도문의 양식을 갖고 있어 예전과 관련이 있는 공통점이 보인다. 또한 야훼께서 주신 좋은 땅에 대한 추억은 땅의 신학적 의미를 상실한 결과로 포로생활을 한 뒤 고국으로 돌아와 뼈아픈 자성을 하며 고백하는 기도문에서도 나타난다(느 9:34-36). 느헤미야 9장의 기도문은 소위 P문서로 알려진 제사장 계열과 신명기, 혹은 신명기 역사가의 신학적인 영향이 함께 나타나고 있지만 땅 주제와 관련해서는 후자의 영향아래 있는 것으로 보인다.³⁸⁾ 비록 여기에서 사용된 땅 묘사(느 9:35, 36)는 전형적인 복지 유형은 아니지만 신명기의 영향을 받은 복지 유형의 변형된 표현양식이라고 볼 수 있다. 이스라엘은 야훼께서 주셨던 “넓고 기름진 땅”(ארץ הרחבה והשמנה)에서 그를 섬기지 않아 종이 되었다고 자탄한다. 그러나 이 기도문은 이스라엘이

37) 39) Diepold, *Israels Land* (Stuttgart: Verlag W. Kohlhammer, 1972), 17, 65-72; R. P. Carroll, *Jeremiah* (London: SCM Press Ltd, 1986), 625; R. Alberts, *Die Exilzeit 6. Jahrhundert v. Chr.* (Stuttgart: Kohlhammer GmbH, 2001), 배희숙 역, 「포로시대의 이스라엘」(서울: 크리스찬다이제스트, 2006), 439-446; D. I. Block, *Ezekiel* (Grand Rapids, Michigan: William B. Erdmans Publishing Company, 1997), 611-616.

38) J. Blenkinsopp, *Ezra-Nehemiah* (Philadelphia: The Westminster Press, 1988), 297-308; M. A. Throntveit, *Ezra-Nehemiah* (Louisville: John Knox Press, 1992), 100-111; G. F. Davies, *Ezra and Nehemiah* (Collegeville, Minnesota: The Liturgical Press, 1999), 111-12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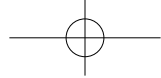
언약을 갱신하는 자리(느 9:38)에서 사용된 것이므로 포로 생활에서 귀환한 공동체가 새로운 역사를 열어가는 희망의 자리이기도 하다. 위에 언급된 세 본문들은 모두 가나안 정착 이후에 역사를 회상하면서 이스라엘이 불순종하여 땅을 잃어버렸지만 다시 땅을 회복할 것에 대한 희망을 언급하고 있다. 이 희망의 근거는 야훼께서 조상에게 맹세하신 땅, 젓과 꿀이 흐르는 좋은 땅을 주셨던 사실에 두고 있다.

5. 결론

이스라엘 땅은 지리적인 의미에서 목축 산업과 포도, 무화과, 올리브 같은 작물재배에 적합한 땅이다. 그러나 이스라엘 땅은 엄밀히 말한다면 애굽인들이 자신들의 땅을 “검은 땅”(black land)라고 자인할 정도의 옥토는 아니었다. 중동지역에서 옥토의 관건은 유프라테스나 나일강 같은 관개수로가 가능한 영구하천이나 강우량, 즉 비에 달려있다. 애굽 땅은 나일강으로부터 발로 물을 끌어다 관개하기에 수월한 땅이지만 이스라엘이 들어가 살 땅은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마셔야 하는 척박한 땅이라는 사실이 신명기에서 분명히 인식되고 있다(11:10-11). 이스라엘은 자신들의 땅이 만성적으로 물이 부족하고 목축과 농업은 비에 의존해야 하는 한계가 많은 땅이라는 것을 알았지만 야훼께서 돌보시는 땅이며 조상들에게 약속해 주신 땅이기에 그 땅을 ‘젓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받아들였다. 신명기의 젓과 꿀이 흐르는 땅은 그것의 소산이 토질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야훼와의 관계, 즉 그의 율법을 준수하는 여부에 좌우되는 땅이라는 의미이다.

6. 참고문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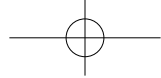
김지은, “구약성서에 나타난 기업(הבנה)으로서의 땅 개념 연구.” 「구



- 약논단」 제9집(2000),215-231.
- 김하연, “젓과 꿀이 흐르는 땅.” 「교회와 신앙」 제14호(1995), 32-39.
- 김회권, 「성서주석: 이사야」 I.(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6).
- _____, 「모세오경」 2.(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6).
- 박동현, 「구약성경과 구약학」. 서울: 장로회신학대학교 출판부, 1999.
- 오동옥, “젓과 꿀이 흐르는 땅.” 「영성의 샘」 84권(2005), 116-122.
- 이한영, “구약윤리와 토지.” 「구약논단」 제18집(2005), 152-161.
- 정장호 편저, 「地理學辭典」.(서울: 경인문화사, 1984).
- 정정숙, 「성서식물」.(서울: 크리스찬 뮤지엄, 2007).
- Aituv, S. *Canaanite Toponyms in Ancient Egyptian Documents*. (Jerusalem: the MagnessPress, 1984).
- Albertz, R. *Religionsgeschichte Israels in alttestamentlicher Zeit I*. (Göttingen: Vanenhoeck & Ruprecht, 1992). 강성열 역. 「이스라엘 종교사 I」.(서울: 크리스찬 다이제스트, 2003).
- _____, *Die Exilzeit 6. Jahrbudert v. Chr*(Stuttgart: Kohlhammer GmbH, 2001), 배희숙 역, 「포로시대의 이스라엘」.(서울: 크리스찬다이제스트, 2006).
- Blenkinsopp, J. *Ezra-Nehemiah*. (Philadelphia: The Westminster Press, 1988).
- Block, D. I. *Ezekiel*. (Grand Rapids, Michigan: William B. Erdmans Publishing Company, 1997).
- Carroll, R. P. *Jeremiah*. (London: SCM Press Ltd, 1986).
- Christensen, D. L. *WBC Deuteronomy 1:1-21:9*. (Nashville: Thomas Nelson Publishers, 2001). 정일오 역. 「신명기 1:1-21:9」.(서울: 솔로몬 출판사, 2003).
- _____, *WBC Deuteronomy 21:10-34:12*. Dallas, (Texas: Thomas NelsonPublishers, 2002). 정일오 역. 「신명기 21:10-34:12」.(서



- 울: 솔로몬 출판사, 2007).
- Davies, G. F. *Ezra and Nehemiah*. (Collegeville, Minnesota: The Liturgical Press, 1999).
- Diepold, *Israels Land*. (Stuttgart: Verlag W. Kohlhammer, 1972).
- Habel, N. C. *The Land is Mine: Six Biblical Land Ideologies*. (Minneapolis: Augsburg Fortress, 1995). 정진원 역. 「땅의 신학」. (서울: 한국신학연구소, 2001).
- Miller, P. D. *Deuteronomy*. (Westminster: John Knox Press, 1990). 김회권 역. 「신명기」. (서울: 한국장로교출판사, 2000).
- Von Rad, G. *Das fünfte Buch Mose: Deuteronomium*. (Göttingen: Vandenhoeck & Ruprecht, 1968). 「국제성서주석: 신명기」. (서울: 한국신학연구소, 1986).
- Gressmann, H. *Der Messias*. (Göttingen, 1929).
- Gross, H. *Die Idee des ewigen und allgemeinen Welt im Alten Orient und im Alten Testament*. (1956).
- LaCocque, A. "The Land in 'D' and 'P'." hrsg., M. A. Klaus-D. Schunck, *Dort ziehen Schiffe dahin...: Beiträge zur Erforschung Des Alten Testaments Und Des Antiken Judentums*. (Frankfurt am Main: Perter Land, 1996), 91-98.
- Levine, E. "The Land of Milk and Honey." *JOT* 87 (2000), 43-57.
- Mann, T. W. *WBC² Deuteronomy*. (Louisville, Kentucky: Westminster John Knox Press, 1995).
- Mays, A. D. H. *Deuteronomy*. (London: Marshall, Morgan & Scott Pub. LTD, 1991).
- McConville, J. G. *Deuteronomy*. (Leicester: InterVarsity Press, 2002).
- Miller, P. D., Jr, "The Gift of God: the Deuteronomic Theology of the Land." *Interpretation* vol. 41 (1969), 454-465.



- Nelson, R. D. *The Old Testament Library: Deuteronomy*. (Louisville·London; Westminster John Knox Press, 2002).
- Plöger, J. G. *Literarkritische, formgeschichtliche und stilkritische Untersuchungen zum Deuteronomium*. (Bonn: Peter Hanstein Verlag GMBH, 1967).
- Pritchard J. B. (ed.), *The Ancient Near East vol. I*.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73).
- Smith, G. A. *The Book of Deuteronomy*. (London: The Syndics of th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50).
- Smith, G. A. *The Historical Geography of the Holy Land*. (The Fontana Library, 1968).
- Stern, P. D. “The Origin and Significance of the Land Flowing with Milk and Honey.” *VT*. XLII, (1992), 554-557.
- Throntveit, M. A. *Ezra-Nehemiah*. (Louisville: John Knox Press, 1992).
- Tigay, J. H. *The JPS Torah Commentary: Deuteronomy*. (Philadelphia: The Jewish Publication Society, 1996).
- Weinfeld, M. *AB Deuteronomy 1-11*. (New York: Doubleday, 1991).
- _____, *Deuteronomy and The Deuteronomistic School*. (Eisenbrauns Winona Lake, Indiana: Oxford University Press, 1992).
- Zvi, Y. “Mighty Rivers in a Desert Land.” *Eretz*, no. 64 (1999), 10-12.

검색어

젓과 꿀이 흐르는 땅
 신명기의 땅
 땅 표현 양식
 이스라엘 땅
 땅에 대한 약속



“A land flowing with milk and honey” in Deuteronomy

Mi-Sook LEE, Th.D.

Assistant Professor, Old Testament

Presbyterian University and Theological Seminary

“A land flowing with milk and honey” is one of the most famous descriptions of the land of Israel. As a symbol of Paradise, the description has been properly interpreted as the special land that God gave the Israelites. Does it mean, however, the ideal condition of the best productive land? This question arises when we consider Israel’s geographical condition. Because, although Israel was more suitable to stock farming and honey was recorded as a main export(Ezk 27:7), it was not an ideal, fertile land. Then, can we interpret the description of “a land flowing with milk and honey” as symbolic or realistic? This study aims to find another explanation for this controversial question.

The study seeks, first, to find in the Old Testament the distribution and pattern of the land formula, “a land flowing with milk and honey,” and then to determine its hermeneutic meaning through an exegesis of the passages in Deuteronomy where it occurs. The exegesis shows, first, that the formula was used as an image of the fertile land that was the foundation for the flourishing of the offspring of the Israelites and their longevity. Then the formula is discussed in a theological reflection, since it is premised on the land that was promised to the forefathers, with Yahweh as the giver of it. Second, because the formula in Deuteronomy shows a feature used in a ceremony and a liturgy, it recalls a redemptive



meaning linked to the Exodus.

This study uncovers a theological meaning that has been overlooked in previous studies on the land formula, “a land flowing with milk and honey.” This formula in Deuteronomy must be an image of the land of Israel as fertile or having other qualities. Nonetheless, a writer(or an editor) of Deuteronomy took a step forward and described it thoroughly in relation to Yahweh. The redemptive meaning connoted in the formula in Deuteronomy seems to influence the subject of the restoration of the land in Jeremiah 32, Ezekiel 20, and Nehemiah 9, which will be studied in the future.

Keywords

A land flowing with milk and honey

Land in Deuteronomy

The land formula

The land of Israel

The promise of the land

■ 투고일: 2015년 01월 01일

■ 심사일: 2015년 01월 20일

■ 게재 확정일: 2015년 02월 06일